

#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an Integrated KORMARC Bibliographic Formats

이 경 호(Kyung-Ho Lee)\*\*

김 정 현(Jeong-Hyen Kim)\*\*\*

### 〈 목 차 〉

I. 서 론	3. 부출원칙의 미비
II.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개발과 특성	4. 표제관련 필드의 자동부출
1.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개발	5. 식별기호 반복여부가 불확실
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	6. 필드 마지막에 온점 입력
III.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문제점 분석	7. 049 필드의 반복
1. 245 필드의 특성	8. 관계와 원괄호
2. 식별기호의 입력원칙 미비	9. 240 필드의 반복
	10. 다권본의 입력원칙
	IV. 결 론

### 초 록

KORMARC 형식은 지금까지 서지정보용, 전자통제용, 소장정보용으로 크게 3 가지 종류의 형식이 개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서지정보용은 다시 매체별로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으로 각각 발간되어 있어 도서관현장에서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KORMARC 형식 가운데 서지정보용이 매체별로 각각 발간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통합서지용으로 발간하게 된 경위와 KORMARC 형식의 구체적인 통합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통합을 하였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KORMARC 형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입력원칙의 미비, 필드의 반복 여부 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 한국목록규칙 제4판

### ABSTRACT

KORMARC formats have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ype of materials at different times. The format was firstly developed and soon after with formats for serials, audiovisual materials, archival and manuscript materials. Although all of the format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same principles, there were same inconsistencies among them. However, there are solved above problems as integrating KORMARC bibliographic formats. First of all, the result was better than we had expected both unified cataloging rules and standard of a descriptive form as accepted KCR4. This study is to roughly analyze integrating process, integrating contents, and problems of KORMARC format.

Key Words: KORMARC Format, Integrated KORMARC, KCR4

\* 이 논문은 2004년도 대구대학교 학술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lee@daegu.ac.kr) (제 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gim@chonnam.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11월 24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 I. 서론

도서관목록은 1970년대 이후 컴퓨터에 의한 카드목록을 생산하고부터 이미 과거 수작업 중심의 카드목록에서 오늘날 컴퓨터 중심의 자동화목록으로 바뀌었다. 당시 자동화목록의 기반으로 개발된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은 카드목록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본 구조와 형식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목록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초창기 MARC이 생성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살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카드목록이란 용어조차 생경하게 여길 지경이다.

R. Fattah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세대의 온라인 목록은 컴퓨터를 사용한 카드목록이었으며, 온라인 목록의 요구에 적합한 규칙으로 개발하지는 못하였다”<sup>1)</sup>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목록은 아직까지도 카드목록에 기반을 둔 목록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온라인목록의 기술형식 및 요소들이 카드목록과는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온라인 목록의 기반이 되고 있는 MARC 형식의 구조 및 기술요소들이 여전히 카드목록의 유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동화목록은 과거의 카드목록 환경에서 온라인목록환경으로 목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의 수작업목록의 규칙을 그대로 답습한 채 목록을 행하고 있음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단적인 예로 MARC 형식은 카드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 조작된 장치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실제 도서관현장에서는 카드목록이 사라진지 오래며, 카드형태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이번에 통합된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형식<sup>2)</sup>)은 전자자료와 계속자료 등과 관련하여 개발된 ISBD(ER)과 ISBD(CR)이 반영되었으며, 무엇보다 KCR4를 반영함으로써 최근의 목록규칙 흐름까지 동시에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MARC 21 형식이 10여년 이상 걸려 완성했던 것을 불과 2~3년 만에 통합은 물론 최근의 목록규칙 흐름까지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통합은 되었지만 KORMARC 형식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본래의 문제점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필드마다 식별기호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순서는 이와 달라 적용상 혼란이 있으며, 관계가 있는 경우 원괄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KORMARC 형식 가운데 서지정보용이 매체별로 각각 발간되어 있었지만 하

1) Rahmatollah Fattahi,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0, No.2(1995), p.27.

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6).

나의 통합서지용으로 발간하게 된 경위와 KORMARC 형식의 구체적인 통합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통합을 하였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KORMARC 형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입력원칙의 미비 등 보완해야 할 문제들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개발과 특성

### 1.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개발

KORMARC 형식은 지금까지 서지정보용,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으로 크게 3가지 종류의 형식이 개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서지정보용은 다시 매체별로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으로 각각 발간되어 있어 도서관현장에서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ORMARC 형식의 통합은 이와 같이 유형이 다른 자료들 즉,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지도자료, 녹음자료 등 서지적 형식을 달리하는 모든 자료들을 위한 한 가지 형식으로 통합함을 의미한다.

MARC 21 형식도 KORMARC 형식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통합서지용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회도서관에서 1965년 처음 MARC을 개발할 때도 단행본을 먼저 개발하였으며, 이어서 1970년대에 단계적으로 연속간행물용, 지도자료용, 필름자료용, 고문서자료용을 개발하였다. 그 후 1980년대 초기부터 통합형식으로 발간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서 1992년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합형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KORMARC 형식의 기본구조는 ISO 2709를 따르고 있으며, LC MARC(오늘날의 MARC 21)과 공통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구조로 레코드가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목록기술은 ISBD에 준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체별로 제정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KORMARC 서지정보용으로 단행본용을 비롯하여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이 단계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전거통제용과 소장정보용도 개발되어 모두 KS로 제정되었다. 그 후 2003년 KCR4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서지기술법이 통일됨으로써 KORMARC 형식에도 KCR4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그동안 별도로 되어있던 서지정보용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KORMARC의 개발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0. 2. KORMARC 단행본 실험용포맷 개발

1983.12. KORMARC 연속간행물 실험용포맷 개발

1991.12. KORMARC 비도서자료용(안) 포맷개발

1993. 1. KORMARC 형식 단행본용이 KS로 제정(KS C 5867 - 1993)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4호)

- 1994.12. KORMARC 형식 연속간행물용이 KS로 제정(KS C 5795 - 1994)
- 1996.12. KORMARC 형식 비도서자료용이 KS로 제정(KS C 5969-1996)
- 1999.12. KORMARC 형식 전거통계용이 KS로 제정(KS X 6006-4)
- 1999.12. KORMARC 형식 소장정보용이 KS로 제정(KS X 6006-5)
- 2000.11. KORMARC 형식 고서용이 KS로 제정(KS X 6006-6)
- 2004. 2. KORMARC 형식(안): 통합서지용 개발
- 2004.10. KORMARC 형식(안): 통합서지용 공청회
- 2005.1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이 KS로 제정(KS X 6006-0)
- 2006. 1.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간략판) 발간
- 2006. 8.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 발간

## 2.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

### 가. 서지형식의 통합

KORMARC 형식은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매체별로 나뉘어 있던 서지정보용 형식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MARC 21형식도 KORMARC 형식과 마찬가지로 단행본부터 개발한 후 단계별로 개발하여 나중에 통합하였다. 미의회도서관의 Byrne은 당시 USMARC 형식의 통합 목표를 통일성(uniformity), 적합성(relevance), 통합성(consolidation)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sup>3)</sup> 아래의 내용은 이것을 바탕으로 KORMARC 형식의 통합에 대한 의의를 분석한 것이다.

첫째, 통일성의 목표는 KORMARC 레코드의 범위 내에서 정보의 세분된 요소들을 코드화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들을 위한 KORMARC 형식을 균일하게 만드는데 있다. 즉, KORMARC 형식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시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식들마다 통일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서지형식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차이점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46 필드(여러 형태의 표제)와 740 필드(부출표목-비통제 연관/분출표제)의 경우 통합서지용 이전에는 연속간행물용 형식과 다른 형식 간에 차이가 있었다. 통합을 함으로써 이전에 740 필드에 기술하던 요소들 즉, 대등표제나 표지표제 등 다양한 형태의 표제들을 통일해서 246 필드에 기술하도록 하고, 740 필드에는 주로 비통제 연관/분출표제를 기술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505 필드의 경우에도 통합형식 이전의 단행본용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빈칸으로 뒀으로써 부출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통합형식에서는 제2지시기호에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부출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하였다.

3) Deborah J. Byrne. *MARC Manual: Understanding and Using MARC Records*, 2nd ed.(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 pp.41-46.

둘째, 적합성의 목표는 KORMARC 형식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즉, 부적합한 구성요소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데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적합하도록 코드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식별이 되어야 정보의 코드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507 필드의 경우 통합형식 이전에는 원저자와 원표제에 관한 주기를 기술하였지만 통합형식에서는 그래픽자료의 축적주기를 하도록 변경하고, 원저자와 원표제는 다른 필드로 이동하였다.

셋째, 통합성의 목표는 모든 유형의 자료들에 관한 모든 서지형식을 하나의 형식으로 모으는 것이다. 즉,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 등의 개별적인 형식 대신에 이제는 모든 유형의 자료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목록담당자가 자료의 유형에 따라 KORMARC 형식을 따로따로 참조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서지기술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목록규칙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KORMARC 기술규칙으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KCR4가 발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지기술이 하나의 규칙으로 표준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KORMARC 형식은 KORMARC 기술규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KCR4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으며, 또한 기존의 소장정보용 형식을 그대로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인터넷 환경을 비롯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러한 문제들도 통합서지용의 발간으로 자연스럽게 해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KCR4의 수용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을 제정하면서 KCR4의 기술원칙 및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기존의 KORMARC 기술규칙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KCR4의 특성은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서지기술과 관련하여 도서관현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에 관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KORMARC 형식에서의 현실적인 수용과 문제점, KCR4와 상이점 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1)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음

KCR4에서 기본표목도 저록을 검색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접근점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KORMARC 형식에서 기본표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한 1XX(100 개인명, 110, 단체명, 111 회의명, 130 통일표제) 필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1XX의 내용을 7XX에 기술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실제로 1XX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기본표목 개념을 적용하여 레코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AACR2R이나 MARC 21에서도 여전히 기본표목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KORMARC에서도 기본표목을 적용한 MARC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기본표목의 필드는 그대로 있더라도 KCR4의 원칙을 수용하여 1XX 필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는 전적으로 개개 도서관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자주기입방식의 오랜 관습과 함께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자기호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저자기호법이 기본표목을 근거로 기호화하기 때문에 저자기호법을 적용하는 한 기본표목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며, 이것은 목록의 기본에 근거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표목을 적용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도서기호를 연대순기호법으로 완전히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기호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연대순기호법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기본표목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저자기호법을 그대로 고수하려면 7XX 필드에 기술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기호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기본표목 1XX에 기술되는 내용이 그대로 7XX에 기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저자기호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7XX의 기술순서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는 등 또 다른 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목록의 국제적인 통일성과 MARC 목록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2)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음

통일표목과 관련이 있는 필드는 240(통일표제), 243(종합통일표제), 630(주제명부출표목-통일표제), 730(부출표목-통일표제), 830(총서부출표목-통일표제) 등이 있다. KCR4에서와 같이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 필드를 굳이 기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개의 접근점 가운데 이들도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접근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 다. 필드의 신설 및 변경

서지형식을 통합하면서 KORMARC 형식에 다음과 같은 필드들이 새로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다.

### (1) 새로이 신설된 필드

새로이 신설된 필드는 <표 1>과 같으며, 이들은 대부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MARC 21형식

에는 설정되어 있었지만 기존의 KORMARC 형식에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필드가 대부분이고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표 1〉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에 신설된 필드

013 \$a 특허제어정보	562 \$a 사본/ 판본 식별 주기
016 \$a 국가서지기관 제어번호	563 \$a 제본정보 주기
018 \$a 저작권료부호	567 \$a 방법 주기
023 \$a 출판시도서목록 제어번호	583 \$a 보존처리 주기
032 \$a 우편물등기번호	584 \$a 이용 누적 및 빈도 주기
036 \$a 컴퓨터 데이터 파일의 원연구번호	654 \$a 주제명부출표목-패시 주제어
051 \$a LC 복사본 발행호, 발체 인쇄물	655 \$a 색인어-장르/형식
055 \$a 지리 분류 기호	656 \$a 색인어 직업
060 \$a 미구국립의학도서관 청구기호	657 \$a 색인어 기능
070 \$a 미구국립농학도서관 청구기호	658 \$a 색인어 교과과정 목표
242 \$a 목록작성기관에서 번역한 표제	720 \$a 부출표목-통제되지 않은 이름
243 \$a 종합통일표제	752 \$a 부출표목-계층적 지명
270 \$a 자료관련주소	754 \$a 부출표목-분류학명
307 \$a 이용시간	774 \$a 구성단위저록
342 \$a 지리공간 참조 정보	786 \$a 데이터의 정보원 저록
343 \$a 평면 좌표 정보	800 \$a 총서부출표목-개인명
352 \$a 디지털 그래피 표현	810 \$a 총서부출표목-단체명
357 \$a 원작자의 배포 제어	811 \$a 총서부출표목-회의명
513 \$a 보고서 유형과 해당기간 주기	852 \$a 소장위치
514 \$a 지리공간데이터 품질 주기	856 \$a 전자적 위치 및 접속
522 \$a 지리적 범위 주기	886 \$a 외국 MARC 정보필드
526 \$a 학습프로그램 주기	887 \$a MARC 이 아닌 필드 정보
552 \$a 개체와 속성 정보 주기	

(2) 부분적으로 수정된 필드

100(기본표목-개인명), 600(주제명부출표목-개인명), 700(부출표목-개인명), 245(표제와 책임 표시사항), 246(여러 형태의 표제), 500(일반주기), 505(내용주기), 507(그래픽자료의 축척주기) 필드 등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가) 100, 600, 700 필드

100, 600, 700 필드는 아래와 같이 제1지시기호에서 개인명의 유형 가운데 ‘복합성’을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에 통합하여 4개에서 3개로 줄였으며, 식별기호도 일부 변경되었다

(나) 245 필드

245 필드의 경우 공청회<sup>4)</sup>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MARC 21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의 독자성이 많이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또한 기본적으로 한 번 입력한 데이터는 재입력하지

4)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공청회 자료(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4. 10).

않는다는 원칙의 적용으로 식별기호 \$a에서 본표제와 저자사항에서 \$e의 반복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 246 필드

246 필드의 경우, 통합되기 전에는 연속간행물용에만 있었지만 통합서지용을 만들면서 연속간행물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필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제2지시기호 9에서 원표제를 기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라) 500 필드

500 필드의 경우 통합되기 전에는 표제관련 주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식별기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식별기호를 \$a(일반주기)로 단순화하였다. 표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주기는 246 필드에 기술하도록 수정되었다.

(마) 505 필드

505 필드는 기본형과 확장형의 두 가지 기술방법이 있다. 기본형의 경우에는 7XX 필드에 다시 내용을 기술하여야 부출표목이 되며, 확장형의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된다.

(바) 507 필드

507 필드는 원저자 및 원표제에 관한 주기에서 그래픽자료의 축척주기로 변경되었다 즉 지금까지 507 필드에 원저자명을 기술할 때는 주기와 부출의 역할을 겸하였지만 7XX에 기술함으로써 부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주기의 역할은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면 일반주기(500 필드)에 다시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래 507 필드에 기술하던 원표제 주기 필드를 246 필드(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기호 '9'(원표제)로 이동하였다. MARC 21에서는 이와 같은 번역도서의 원표제는 240 필드에서 통일표제로 기술하고 있다.

### III.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문제점 분석

#### 1. 245 필드의 특성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은 MARC 21을 모델로 하여 개발된 것이나 일부 독자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 번 입력한 데이터는 가능하면 재입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



선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된 대표적인 필드로 245 필드를 들 수 있다. MARC 21에서 본표제의 기술은 동일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 혹은 서로 다른 저자의 다작이 수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표제(\$a)는 반복사용을 불허하는, 다시 말하면 엄격히 하나의 레코드에 하나의 표제 중심으로 목록을 한다. 그리고 245 필드에 기술한 내용 가운데 본표제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있지만 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246 필드에서 기술하여 접근점을 제공한다. 또한 245 필드에 기술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저작이나 다른 저자의 저작은 740 필드에 부출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KORMARC에서는 \$a(본표제)를 반복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2개 이상의 표제가 열기되어 있는 경우 \$a의 반복 사용으로 1레코드 다표제 기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45 필드에서 두 번째 이하 \$a에 기술한 표제는 첫 번째로 기술된 본표제와 마찬가지로 246 필드나 740 필드의 부출에 관계없이 자동접근이 가능하게끔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a에 첫 번째로 기술하는 본표제나 두 번째 이하에 기술하는 본표제는 기술순서의 차이일 뿐 접근점을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a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레코드 상에 본표제를 중복해서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를 반복 사용하고 740 필드에 다시 디스플레이 하는 형식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이나 설명이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은 물론 도서관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도서관이나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는 245 필드의 두 번째 이하의 \$a에 기술된 표제에 대해서는 740 필드에 자동 생성하게 하여 단지 같은 내용을 두 번 입력하지 않는 수단으로 \$a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a에 기술한 표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다같이 본표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차 부출을 위한 필드의 추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자사항의 기술에서 /\$d홍길동, \$e김길동; \$e양영자 ... 와 같이 기술한 경우는 한 번 입력한 데이터는 가능하면 재입력하지 않는다는 입력의 편의성을 강조하여 기술규칙을 MARC 21과 달리 여러 식별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목록의 기본원칙에는 어긋난다. 하지만 식별기호 \$d나 \$e에 기술한 저자명은 본표제와는 달리 기술한 그대로 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부출필드인 700에 편집을 위해 디스플레이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사서가 최종적으로 편집하여 MARC 레코드를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도 KORMARC 형식 안을 만들 때, MARC 21과 같이 \$c(혹은 \$d)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국제적인 목록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단지 입력상에서 데이터를 두 번 입력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입력상의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MARC 레코드에 있어 기술상의 호환성을 무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MARC 21 형식과 KORMARC 형식의 245 필드 간에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MARC 21 형식과 KORMARC 형식의 245 필드의 비교

구분	MARC 21 형식	KORMARC 형식	비고
제1지시기호	표제부출 0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1 표제를 부출함	표제부출 0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1 표제를 부출함 2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 부출	다름
제2지시기호	배열에서 무시되는 문자 0-9 배열에서 무시되는 문자수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다름
식별기호	\$a 본표제 [반복불가]	\$a 본표제 [반복]	다름
	\$b 기타표제 [반복불가]	\$b 표제관련정보 [반복] \$x 대등표제 [반복]	다름
	\$c 책임표시 [반복불가]	\$d 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불가] <sup>5)</sup> \$e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반복]	다름
	\$f 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 [반복불가]	\$f 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 [반복불가]	같음
	\$g 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 [반복불가]	\$g 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 [반복불가]	같음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같음
	\$k 형식 [반복]	\$k 형식 [반복]	같음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같음
	\$p 권제 또는 편제 [반복]	\$p 권제 또는 편제 [반복]	같음
	\$s 판 [반복불가]	\$s 판 [반복불가]	같음
	\$6 관련필드와의 연결 [반복불가]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같음	

## 2. 식별기호의 입력원칙 미비

아무리 규칙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없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식별기호를 코드화하여 알파벳순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레코드를 작성할 경우 식별기호가 알파벳순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록규칙에 맞게 식별기호의 입력형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 개선안: 245 필드의 입력형식 제시

5) 245 필드에서 \$d [반복불가]는 잘못된 표기임. 245 필드 내에서 \$a가 반복될 경우에는 \$d, \$f, \$g, \$h, \$s도 함께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사용할 수 있다

245 \$a본표제 \$h[자료유형표시] = \$x대등표제 : \$b표제관련정보. \$n권차, \$p권차표제 /  
\$d첫 번째 책임표시, \$e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 \$e 역할을 달리하는 책임표시

505 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본형일 경우에는 식별기호 \$a 만 사용되며 확장형일 경우에는 \$a를 제외한 식별기호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때도 식별기호를 코드화하여 알파벳순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레코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식별기호가 알파벳순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록규칙에 맞게 식별기호의 입력형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 개선안: 505 필드의 입력형식 제시  
(기본형) 505 \$a 형식화된 내용주기  
(확장형) 505 0 \$n권차. \$t표제 / \$d첫 번째 책임표시, \$e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g 기타정보

한편 245 필드를 비롯하여 240, 242, 243, 246, 247 필드 등의 표제관련필드의 경우 식별기호 \$a의 [필수]지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드들은 \$a 즉 표제를 기술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만의 기술만으로는 필드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a의 [필수]지정이 필요하며, 다른 요소들은 [선택]사항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본표제 \$a가 없는 필드는 존재할 수가 없다.

- 예시: \$a 없는 필드는 존재할 수 없음  
245 \$x대등표제 : \$b표제관련정보 / \$d첫 번째 책임표시, \$e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  
\$e 역할을 달리하는 책임표시  
246 \$b 표제관련정보

### 3. 부출원칙의 미비

245 필드에서 \$a가 반복 사용되어 표제가 2개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이하의 표제, 245 필드에서 \$e에 기술되는 다양한 책임표시, 그리고 505 필드에서 확장형으로 기술할 때 505 필드의 내용(표제와 책임표시) 등은 모두 해당 필드에서 식별기호를 부여하여 입력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접근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7XX 필드에 다시 기술을 해야 하는지, 기술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되는지 입력원칙이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무조건 자동부출이 되므로 7XX에 다시 기술하지 않아도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다시 7XX에 다시 기술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목록자의 혼선이 없을 것이다. KORMARC

의 245 필드와 505 필드에서 목록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에 제시한 예시에서 모두 1안이 가장 이상적인 기술방법이라 생각된다

가. 동일저자의 본표제 반복

1안) 가장 이상적인 입력의 형태로 두 번째 이하의 \$a에 기술한 모든 표제에 대해 첫 번째 본표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표제색인을 만들도록 하여 접근점을 제공하고, 다른 필드에 다시 기술하지 않는 형식이다.

100 \$a 이광수  
245 10\$a사랑 ;\$a흠 ;\$a무정 /\$d이광수 저

2안) 두 번째 이하의 \$a에 기술한 본표제를 246 필드에 부출한 형태로 최종 형태를 두고 보면 두 번째 이하의 \$a는 245 필드의 \$e 와 같이 두 번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 246 필드에 부출한 이유는 \$a에 기술한 모든 표제는 본표제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100 \$a 이광수  
245 10\$a사랑 ;\$a흠 ;\$a무정 /\$d이광수 저  
246 \$a 흠  
246 \$a 무정

3안) 두 번째 이하의 \$a에 기술한 본표제를 740 필드에 부출한 형태로 최종 형태를 두고 보면 2안과 같다. 740 필드에 부출한 이유는 두 번째 이하의 \$a에 기술한 모든 표제는 본표제와 관련이 없는 표제로 간주하여 부출한 것이다.

100 \$a 이광수  
245 10\$a사랑 ;\$a흠 ;\$a무정 /\$d이광수 저  
740 \$a 흠  
740 \$a 무정

나. 본표제와 저자가 다른 합집

1안) 100 \$a 이광수

245 10\$a사랑/\$d이광수.\$a메밀꽃 필 무렵/\$d 이효석\$a 감자/\$d 김동인  
 700 \$a 이효석  
 700 \$a 김동인

2안) 100 \$a이광수

245 10\$a사랑/\$d이광수.\$a메밀꽃 필 무렵/\$d 이효석\$a 감자/\$d 김동인  
 246 \$a 메밀꽃 필 무렵  
 246 \$a 감자  
 700 \$a 이효석  
 700 \$a 김동인

3안) 100 \$a이광수

245 10\$a사랑/\$d이광수.\$a메밀꽃 필 무렵/\$d 이효석\$a 감자/\$d 김동인  
 700 \$a 이효석  
 700 \$a 김동인  
 740 \$a 메밀꽃 필 무렵  
 740 \$ 감자

다. 505 필드의 확장형에 의한 기술방법

505 필드의 확장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식별기호 \$a를 제외한 여러 가지 식별기호를 반복 사용하여 형식화된 내용주기를 자세한 부분에까지 기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505 필드에서 서명, 저자명, 색인파일을 직접 생성할 수도 있다. 정확한 색인파일 작성을 위하여 7xx 필드에 부출표목을 생성하여 저자명의 도치나 서명의 첫머리에 오는 문자를 제외할 수도 있다<sup>6)</sup> 고 기술하고 있어 명확한 입력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505 필드의 확장형은 MARC목록에서 입력의 번거로움과 중복입력을 피하기 위해 카드목록의 틀에서 벗어나 자동화목록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주기 한 것에서 특정필드에 의한 부출 없이 바로 색인파일을 만들어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505 필드에서 확장형으로 기술한 경우에 \$t에 기술하는 서명은 특별한 부출필드 없이 바로 접근이 되는 만큼 서명 첫머리에 오는 관사(관제)나 배열에서 무시하고자 하는 단어를 제외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d에 기술하는 저자명에 대해서는 직접 색인파일도 가능하나 저자명의 도치를 비롯하여 수정하여야 할 경우가 더 많은 만큼, 245 필드의 \$e처럼 700 필드에 디스플레이 하고 수정하여 입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6)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6), p.664.

1안) 표제는 자동색인파일 구축, 저자사항은 부출필드 생성 후 수정하여 목록

- 245 00\$a 世界文學全集
- 505 00\$n.\$t젊은獅子들 /\$d어어원 쇼 作 ;\$e金聲翰 譯 -- \$n.2\$t忿怒는  
葡萄처럼 /\$d존 쉬타인 백 作 ;\$e康鳳植 譯 -- [이하 생략]
- 700 \$a쇼, 어어원
- 700 \$a 김성한
- 700 \$a백 존 쉬타인
- 700 \$a 강봉식

2안) 표제와 저자 모두 식별기호에 의해 부출필드를 생성하게 하고 수정 후 목록을 완성

- 245 00\$a 世界文學全集
- 505 00\$n.\$t젊은獅子들 /\$d어어원 쇼 作 ;\$e金聲翰 譯 -- \$n.2\$t忿怒는  
葡萄처럼 /\$d존 쉬타인 백 作 ;\$e康鳳植 譯 -- [이하 생략]
- 700 \$a쇼, 어어원
- 700 \$a 김성한
- 700 \$a백 존 쉬타인
- 700 \$a 강봉식
- 740 \$a 젊은 사자들
- 740 \$ 분노는 포도처럼

#### 4. 표제관련 필드의 자동부출

표제와 관련된 정보들은 대부분 접근점으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이 246 필드(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기호에 유형화되어 있는 다양한 표제들은 실제로 이용자들이 접근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지시기호를 살펴보면 '0'과 '2'는 부출하지 않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부출하지 않으면 접근점이 될 수 없고 검색요소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246 필드에 기술하는 취지가 상실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목록자의 경우 부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정된 필드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원래 MARC 목록에서 부출의 여부는 목록카드를 인쇄할 때 부출카드를 만들어 주라는 의미이지 부출 되지 않으면 접근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의 예가 245 필드에서 나타난다. 245 필드에서 제1지시기호가 부출을 하지 않음(0)으로 기술하여도 245 필드의 본서명은 지시기호의 부출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MARC

목록에서 지시기호의 부출여부는 목록카드를 출력할 경우의 부출지시이며, 온라인 목록에서 부출은 바로 접근을 의미하고 부출이 되지 않으면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표제와 관련된 필드는 모두 접근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지시기호 - 주기제어/표제부출

- 0 - 주기함,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 1 - 주기함, 표제를 부출함
- 2 - 주기하지 않음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 3 - 주기하지 않음 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표출어 제어/표제유형

- |                          |            |          |          |
|--------------------------|------------|----------|----------|
| 0 - 검색을 위한 부분표제, 편제, 별표제 | 1 - 대등표제   | 2 - 개별표제 | 3 - 기타표제 |
| 4 - 표지표제                 | 5 - 부표제면표제 | 6 - 권두표제 |          |
| 7 - 난외표제                 | 8 - 책등표제   | 9 - 원표제  |          |

결국 제1지시기호에서 부출여부는 카드 출력의 경우이며, 온라인 목록에서는 자동접근 필드로 처리함으로써 당연히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246 필드뿐만 아니라 240, 242, 243, 247 등에 기술되는 표제도 모두 자동으로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색의 효용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246 필드의 표제를 자동접근으로 처리할 경우 제 1지시기호는 다음과 같이 주기제어로 수정하면 될 것이다.

- 개선안: 246 필드의 제 1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주기제어

- 0 - 주기함
- 1 - 주기하지 않음

## 5. 식별기호 반복여부가 불확실

KORMARC에서 245 필드의 \$d는 [반복불가]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반복불가]로 표현할 경우에는 MARC 21과 같이 본서명(\$a)이 반복불가인 경우에 해당되며, 본서명이 반복 사용한 경우에는 \$d도 [반복]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하 \$f, \$g, \$h, \$s도 마찬가지이다.

\$d의 반복사용에 대해서는 245 필드의 구조와 식별기호를 다음과 같이 라운드(round)의 개념과 레벨(level)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편의상 245 필드 내에서 표제가 반복일 때 해당 표제와 관련된 식별기호 전체 블록(\$a~\$8)을 라운드라고 하면 KORMARC의 245 필드에서는 라운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또 각 라운드 내에서 각각의 요소를 레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a의 본서명은 라운드도 반복할 수 있고, 라운드 내의 레벨에서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KORMARC에서 이 라운드와 레벨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하여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다음의 첫 번째 예는 245 필드에서 \$a가 3회 연속 사용된 경우로서 라운드가 3회 반복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d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a 이하 모든 식별기호는 245 필드 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즉, \$a가 반복 사용되면 \$d도 동시에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첫 번째 예시는 3명의 저자와 저작이 쌍으로 연결된 형태로서 245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별기호가 회순 즉, 라운드를 3회 반복사용 한 경우로서 \$a의 반복에 따라 \$d 또한 반복 사용한 경우이며, 두 번째 예시는 한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이 연속된 경우로서 한 회순 내에서 \$a가 반복된 경우로서 \$d는 반복사용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245 필드에서 \$d는 라운드가 반복되면 반복 사용되나, 한 라운드 안에서 레벨은 반복불가로 나타난다. KORMARC에서 \$d를 반복불가로 기술한 것은 245 필드의 한 라운드 내에서 반복불가란 의미를 기술한 것으로 생각되나, 245 필드 전체로 보면 [반복]으로 표현함이 마땅하다. 즉, KORMARC에서 \$a는 라운드 반복이 가능하고, 한 라운드 내에서 레벨 반복도 가능하다. 반면, \$d는 \$a가 라운드 반복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각각의 라운드에서 기술 가능하나, 한 라운드 내에서 반복 기술은 불가능한 것이다.

245 \$a사랑 : \$b남과 여 / \$d이광수, \$e이영자. \$a열정 / \$d오영실. \$a기쁨 / \$d 장영실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제3라운드)  
 [245 필드에서 라운드가 3회 사용된 경우의 예로 \$d를 반복사용 할 수 있음]

245 \$a사랑: \$a무정 : \$a흠 / \$d 이광수  
 [245 필드의 한 라운드 내에서 \$a가 3회 반복된 경우이며, 이때 한 라운드 내에서는 \$d가 반복 사용될 수 없음]



## 6. 필드 마지막에 온점 입력

ISBD에서 서지기술사항과 사항을 연결할 때는 온점, 빈칸, 이중불임표, 빈칸(. --)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문단바꿈 등에 의해 사항사이가 뚜렷이 구분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MARC 21과 같은 경우에는 서지기술필드의 각 필드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온점(.)으로 필드를 종료하고 입력한다. 이렇게 온점으로 필드를 마무리하여 입력함으로써 MARC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지데이터를 불러와 ISBD 형식으로 기술할 때는 245 필드 데이터와 이어 나오는 서지데이터 사이에는 빈칸, 이중불임표, 빈칸( --)만 이어주고 서지데이터를 계속하여 기술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KORMARC의 경우에는 필드 마지막에 온점을 입력하지 않고 있어 KORMARC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 ISBD형식으로 서지기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점, 빈칸, 이중불임표, 빈칸(. --)을 서지데이터 사이마다 붙여 주어야 하며, 빈칸, 이중불임표, 빈칸( --)의 서지연결기호 이외에 온점을 항상 부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렇게 항상 서지기술단위 마지막에 온점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레코드를 출력할 경우에 판사항 다음에 온점이 이중으로 출력된다. 물론 KORMARC의 경우 모든 서지데이터 입력 마지막에는 온점을 찍지 않게 입력할 수도 있겠으나 약자나 두문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국제적 서지기술규칙에 어긋나는 일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KORMARC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후, ISBD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하면, 온점은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선별적 부여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선별적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판사항의 경우 영문표기와 한글표기를 구분해 온점을 사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하겠다.

### • 예시

245 10\$a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dWilliam A. Katz

250 \$a5th ed.

260 \$aNew York : \$bMcGraw-Hill, \$cc1987

300 \$a2 v. ; \$c24 cm

[출력형식] →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5th ed., -- New

York : McGraw-Hill, c1987. -- 2 v. ; 24 cm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MARC 21과 같이 필요한 곳에는 모두 필드 마지막에 온점을 입력하고, 사항과 사항사이에는 일괄적으로 이중불임표만 출력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

- 개선안: 필드 마지막에 온점 입력

245 10\$a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dWilliam A. Katz.

250 \$a5th ed.

260 \$aNew York : \$bMcGraw-Hill, \$cc1987.

300 \$a2 v. ; \$c24 cm.

[출력형식] →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5th ed. -- New York : McGraw-Hill, c1987. -- 2 v. ; 24 cm.

### 7. 049 필드의 반복

이 필드에는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도서관부호와 소장자료의 등록번호, 권책기호, 복본기호, 별치기호 등을 기술하며, 반복불가로 되어있다. 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지시기호

0 - 해당자료 전체가 동일한 곳에 배가(별치) 되는 경우

1 - 해당자료 전체가 동일한 곳에 배가(별치)되지 않은 경우

제2지시기호    b - 빈칸

049 0b\$a소장기관 부호\$1등록번호[반복]\$v권책기호[반복]

\$c복본기호[반복]\$f별치기호[반복]

그러나 실제로 도서관의 자관소장 정보를 입력함에 있어서는 049의 필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장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 소장처 별로 별도의 필드를 가지고 복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다권본이나 많은 양의 복본을 처리함에 있어 시각적인 효과로 자관 정보의 식별이 용이하다. 자료에 따라 여러 장소에 분산 소장하고 있고, 권차가 계속되고 다수의 복본이 구입된 경우, 하나의 049 필드에서 소장정보를 입력하면, 자료실별(혹은 분관) 소장정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DB구축 작업이 늦어지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소장자료가 복본일지라도 인쇄연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식별기호에 가격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바코드 이하를 반복입력하고, 장소를 달리하면 필드를 반복 사용하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 개선안: 049 필드

형식은 아래와 같으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바코드 이하를 반복입력하고, 장소를 달리하면 필드를 반복 사용하여 입력한다.

049 \$a소장기관 부호\$c분류기호\$d저자기호\$g바코드\$h년도\$i권(vol)  
\$k호(number) \$n복본표시 \$o등록번호 \$p가격

### 8. 관제와 원괄호

KORMARC 형식의 기본구조는 MARC 21 형식과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른 점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나 관습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MARC 21 형식이 주로 알파벳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KORMARC 형식은 한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관제이며, 표제관련필드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표제와 관련이 있는 필드 즉, 222(등록표제), 240(통일표제), 242(목록작성기관에서 번역한 표제), 245(표제와 책임표시사항), 440(총서사항/부출표제-표제), 490(총서사항/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 등에서는 관제를 제어하기 위하여 지시기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부출

- 0 -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 1 - 표제를 부출함
- 2 -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관제 또는 관사처리 제어

- 0 - 그대로 인쇄
- 1 -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 \$d김용운, \$e김용국 지음

245 20 \$a(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매체와 교수매체론 / \$d이병기 지음

245 20 \$a(최신) 전자측정공학 / \$d정진국 지음

위의 예시에서 245 필드다음에 제1지시기호가 '2'이므로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하고, 제2지시기호가 '0'이므로 원괄호와 관제를 그대로 인쇄하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 부출형식은 '재미있는 수학여행'이며, 출력형식은 '(재미있는) 수학여행'이다.

여기서 이용자가 이 레코드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는 ‘재미있는 수학여행’을 찾을 수도 있고, ‘수학여행’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지시기호만으로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모두 검색이 될 수 있는 지 명확하지가 않다. 실제로 검색을 위해 색인파일의 ‘재미있는 수학여행 과 수학여행’ 모두 작성되는지, 한 가지만 작성되는지, 아니면 출력형식대로만 검색할 수 있는지 목록 담당자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시기호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는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상으로 관제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표제 모두가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도서관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제가 있는 경우 245 필드에는 원괄호속에 관제를 포함하여 표제를 기술하고, 246 필드에서 검색을 위한 부분표제(제2지시기호가 ‘0’임)로서 관제를 제외한 표제를 다시 기술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 제1지시기호 2의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함은 필요없게 된다.

• 현행

245 20\$a(재미있는) 수학여행 /\$d김용운,\$e김용국 지음

- 개선안: 관제를 포함한 표제(245 필드)와 관제를 제외한 표제(246 필드)가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게 양쪽 모두를 기술함

245 20\$a(재미있는) 수학여행 /\$d김용운,\$e김용국 지음

246 30\$a수학여행 /\$d 김용운 \$e 김용국 지음

### 9. 240 필드의 반복

240 필드는 저작에 대한 통일표제를 기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즉, 저작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표제는 245 필드에 기술되지만 통일표제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240에 기술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KORMARC 형식은 MARC 21 형식과 달리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2개 이상의 표제가 열기되어 있는 경우, 245 필드에서 두 번째 이하의 표제에도 \$a를 반복해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45 필드에 식별기호상으로는 본표제가 2개 이상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두 번째 이하의 표제에 대해서도 통일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40 필드에서 245 필드와 마찬가지로 \$a를 반복기술하거나, 240 필드 자체를 반복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두 번째 이하의 저작에 대한 부출표목은 740 필드에 기술하고, 여기에 대한 통일표제는 730 필드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지만 MARC 21 형식과는 달리 KORMARC 형식에서는 245 필드의 \$a가 반복기술이면, 240 필드의 \$a도 반복기술 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 10. 다권본의 입력원칙

다권본이나 전집자료의 경우 입력원칙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들 자료의 경우 245 필드에서 책임표시사항 다음에 권차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049 필드에 소장표시로 기술해야 할 사항이며, 권차에 따른 내용을 표현할 경우에는 주기사항에 기술하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245 필드의 \$n(권차 및 편차)과 \$p(권제 또는 편제)에 설명을 분석하면 이와 같은 취지로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n과 \$p를 반복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아래의 예시대로 적용하려면 \$n과 \$p는 반복이 아니라 반복불가가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 • 예시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 \$d김용운, \$e김용국 지음  
300 \$a4 책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n1, \$p수의 세계 / \$d김용운, \$e김용국 지음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n2, \$p논리의 세계 / \$d김용운, \$e김용국 지음

### • 예시: 아래의 예시는 잘못된 것임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n1-4 / \$d김용운, \$e김용국 지음

300 \$a4 책

[전체 소장권호를 245 필드에는 기술하지 않음]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n1-2 / \$d김용운, \$e김용국 지음

300 \$a2 책

[일부 소장권호도 기술하지 않음]

## IV. 결 론

지금까지 KORMARC 형식이 하나의 통합서지용으로 발간하게 된 경위와 KORMARC 형식의 구체적인 통합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RMARC 형식을 통합하

면서 KCR4를 수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목록규칙이 일원화되고, 기술형식이 통일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의 논란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통합을 하였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KORMARC 형식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45 필드의 입력한 데이터는 가능하면 재입력하지 않음으로써 입력의 편의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서지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둘째, 목록규칙에 맞게 식별기호의 입력형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무조건 자동부출이 되므로 7XX에 다시 기술하지 않아도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다시 7XX에 다시 기술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목록자의 혼선이 없을 것이다.

넷째, 표제관련 필드의 경우 제1 지시기호에서 부출여부를 굳이 제어할 필요 없이 모두 자동부출로 처리함으로써 당연히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45 필드의 식별기호 \$a와 \$d는 라운드에서는 반복가능이만 라운드내의 레벨에서에서는 반복불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필요한 모든 필드의 마지막에 온점을 입력하고, 사항과 사항사이에는 일률적으로 이중불임표만 출력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일곱째, 도서관의 자관소장 정보를 입력함에 있어서는 049의 필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여덟째, 관계가 있는 경우 245 필드에는 원괄호속에 관계를 포함하여 표제를 기술하고, 246 필드에서 검색을 위한 부분표제(제2지시기호가 '0'임)로서 관계를 제외한 표제를 다시 기술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홉째, 245 필드의 \$a가 반복기술이면 240 필드의 \$a도 반복기술 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열째, 다권본의 경우 \$n과 \$p는 반복이 아니라 반복불가가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고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0.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비도서자료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6.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연속간행물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5.

-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공청회 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4. 10.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6.
- 김정현. 목록조직의 실제, 개정판. 대구: 태일사, 2006.
- 김정현.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61 권 제 호(2006. 6), pp.89-113.
- 이경호. “한국문헌목록정보(KORMARC)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pp.295-322.
- 이경호, 김정현. 자료목록법 : KORMARC · MARC 21을 중심으로, 개정판.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 이창수.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137-148.
- 정옥경.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 권 제 호(1998. 9), pp.81-96.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2003.
- 玄圭燮. 自動化目錄法序說.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6.
- 古川肇. “英米目錄規則に關する改訂の動向: 一展望,” 資料組織化研究, 2000. 7, pp.15-29.
- Byrne, Deborah J. *MARC Manual : Understanding and Using MARC Records, 2nd ed.*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
- Fattahi, Rahmatollah.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0, No.2(1995), pp.25-50.
- Library of Congress. *MARC 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 2004 Concise Edition.*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cited 2006. 11. 15].

к с і